

3월 1주 수요일기 <上>



이계복

'마하넷' 대표(승사모 회장)

대학 1학년 때 불교학생회에 입학함으로써 불교와의 인연이 시작되었으니 벌써 10년이 넘는 셈이다. 한창 한국대학생 불교연합회 활동을 하던 2학년 4월의 어느 날, '과연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심각한 고민 속에서 출가를 감명하게 되었다.

달랑 가방 하나를 메고 떠나 온 길이었기에 낯선 곳에서의

게 힘든 군대 생활과 출가 생활을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불심이 일어났다.

당시, 마음 속의 온갖 유혹 속에서도 기도를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간절하면 이루어진다'라는 신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은 몸이 짊어지고 갈수 현상으로 서있기조차 힘들었지만 마지막 3배를 드릴 때의 희열은 절 수행을 해본 불자들만 알 것이라 생각한다.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끄려는 간절한 입념으로 기도를 한 탓인지, 입대 후 사단 군중병은 절 수행을 해본 불자들만 알 것이라 생각한다.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끄려는 간절한 입념으로 기도를 한 탓인지, 입대 후 사단 군중병은 절 수행을 해본 불자들만 알 것이라 생각한다.

사단 내에 훈련소가 있던 탓으로 훈련병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일과 조식 예절, 정기 법회 인례 등으로 정신없는 시간들이었다. 지금까지

군중병으로 불교인연 지속되길 기원

마하넷 운영 '승사모' 활동등 삶에 보람

행자 생활은 우여곡절도 많았다. 그렇게 6개월여가 지나 어느 정도 행자생활에 적응할 때쯤, 군 입대 영장을 받게 되었다. 이런 저런 고민 속에서 한 번은 다녀와야 할 곳이라면 피할 수는 없겠다는 생각에 입대를 결심했다.

자의 삶 속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을 꼽으라면 학창 시절과 군 생활이 아닐까 싶은 정도로, 힘들었지만 보람있는 시간들이었다.

그렇게 군 생활을 마치고 자연스럽게 복학을 하게 되었고 대불련 지회장, 지부장, 간사로 이어지는 활동을 통해 불교는 대학시절과 별래야 될 수 없는 생활의 일부가 되었다.

그 인연들로 인해 졸업 후에도 불교전문 홈페이지 제작업체인 '마하넷'을 운영하고 있으니, 전생에 닦은 선근인연이 있었지 않나 생각한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승광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장 소임을 맡아 매달 한 차례 승광사를 비롯한 전국의 사찰에서 철야정진을 하고 있는 것도 재학 시절과 군대 생활에서 얻은 추억과 환희심 때문이었다. 온-오프 라인 상에서 많은 도반들과 함께하는 공부하는 늘 생활의 활력소가 되고있다.(계속)

“토요일 밤, 철야참선으로 즐거운 인생”



◇23번째 주말철야참선법회를 열고있는 부석사의 무량수전 내 정진모습.

“이 곳은 날씨에 변잡한 일사사를 벗어나고 전국에서 모인 재가 수행자들은 참으로 희유한 불자들로서, 참된 법보시를 실천하고 계신 겁니다. 철야정진동안 끊임없이 회광반조하며 화두를 챙겨서 생사해탈하시기 바랍니다.”

장대비가 내리던 지난 8월 30일, 경북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100여명의 불자들이 이날 저녁 9시부터 시작된 부석사 주지 근일 스님(고운사 회주)의 법문을 듣기 위해 6시부터 예불과 기도를 하고 있었다. 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안동, 영주, 대구, 부산, 서울 등 전국 각지에서 온 재가 선객들은 꿈이어서 법단에 오른 근일스님의 참선 법문을 들은 뒤, 죽비 소리에 맞춰 입선에 돌입했다.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는 10년 이상의 구참 선객들은 태산처럼 미동도 없지만, 억지로 화두를 챙기는 선참자들은 아무래도 힘이 달린다. 저런 다리를 바꾸기도 하고, 포갠던 손도 바꾸어 보고, 몸도 흔들고 보고, 어깨도 추슬러 보고... 매달 한번 저녁 9시부터 새벽 3시까지 진행되는 철야참선 시간에 신참자들은, 수마와 싸우는 용맹정진을 통해 어느새 은산철벽을 마주할 수 있는 구참 선객으로 변해있을 것이다.

최근 주 5일 근무제가 정착되면서 부석사와 같은 전통사찰이나 시민선원, 재가 수행단체에서 매주 또는 매달 정기적으로 철야정진을 실시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바쁜 일과로 인해 시간을 내기 힘든 직장인과 주부들 사이에서는 새로운 주

단체	시간	연락처
해운정사	매주 토	(051)746-4812
부석사	매월 마지막 토	(054)633-3464
화계사 선우회	매주 토	(02)900-4326
보림회	매주 토	(02)914-6187
수선회	매주 토	(02)517-3108
우곡선원	매월 첫째 토	(02)2055-3111
선학원 선정회	매월 셋째 토	(02)732-3327
통도사 극락암	매주 토	(055)382-7083
학림사 오동시민선원	매주 토	(042)825-0515
미타사	매주 토	(02)662-4736
법련사	매월 마지막 토	(02)733-5322
공림사	매월 셋째 토	(043)833-1029
대구구도회	매월 마지막 토	(053)654-8533
대전구도회	매월 셋째 토	(042)527-0559
법륜사	매월 둘째 토	(043)878-6122
홍련암	매월 첫·셋째 토	(063)263-6072
해인사 백련암	매월 넷째 토	(055)932-7300
해인사 원당암	매월 첫·셋째 토	(055)963-9551
범어사	매월 첫째 토	(051)508-3122
통도사 부산포교원	매주 토	(051)816-2241
장안사	매월 마지막 토	(031)703-7766

주5일 근무제후 실시하는 곳 증가

새로운 주말 수행패턴으로 각광

부석사, 화계사등 20년 이상 법회

말 수행패턴으로 각광받고 있다. 재가 불자들은 철야 참선을 통해 1주일간 미뤄둔 선정 수행에 집중하면서 다가오는 한 주를 활기차게 맞이하고 있다.

매주 철야참선의 전통을 이어온 사찰은 서울 화계사와 보림선원, 미타사, 수선회를 비롯해 부산 해운정사, 통도사 극락선원, 대전 학림사 오동시민선원 등이 대표적이다.

화계사 선우회는 26번째 매주 토요일 저녁 9시부터 일요일 오전 3시까지 주말 철야참선을 하는 곳으로 유명하다. 보림선원 보림회는 30번째 주말 철야정진을 하고 있다. 여름 및 겨울 휴가철에는 1주일 용맹정진까지 하고 있다. 부산 해운정사는 10여년째 매주 토요일 오후 8시 30분부터 조실 진제 스님의 지도하에 법문 및 참선, 108배 등을 하고 있다. 97년 개원한 학림사 오동시민선원은 매주 토요일 조실 대원스님의 '대주선사

어록' 때문에 이어 철야참선을 하고 있다. 경북 스님이 주석했던 통도사 극락선원도 3년전부터 선원장 명정스님의 지도하에 매주 토요일 철야 참선법회가 열린다.

부석사와 같이 한 달에 한 번 정기 철야참선법회를 열고 있는 곳도 적지 않다.

해인사 백련암(매월 넷째 토)과 원당암(매월 첫, 셋째 토)은 입적한 성철스님과 해암스님이 주석할 때부터 20여년이 넘게 철야정진을 하고 있다. 선학원 증양선원은 매월 둘째 주 토요일 선정회 주관으로 철야참선을 하고 있다. 서울 법련사, 통도사 분당포교원 장안사, 대구구도회는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철야정진법회를 실시하고 있다. 대표적인 시민선원인 우곡선원은 5년째 매월 첫째 토요일, 주말 철야정진을 실시하고 있다. 이밖에도 범어사, 공림사, 대전구도회, 법륜사, 홍련암, 장안사도 매월 1회 철야정진을 하고 있다.

철야정진을 한 지 20년이 넘는 곳에서도 최근 개설된 곳까지, 이와 같은 용맹정진의 열기는 간혹 수행풍토가 살아있음을 나타내는 증거이기도 하다. 20여년간 부석사 월말철야법회를 이끌어 온 부석사 이화춘(60, 도성학) 신도회장은 "선방에서 묵묵히 정진하는 스님들과 이를 본받아 공부하는 재가 불자들이 있는 한 간혹 수행풍토가 다시 꽃피울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영주=김재경 기자 igkim@buddhapia.com

무심선원 재가단체론 첫 '소참법회'



옛부터 선종(禪宗) 사찰에서는 정기적인 설법(法講) 이외에 '소참(小參)'이라고 하여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수시로 설법의 자리를 마련했다.

부산 무심선원(원장 김태완·사진 www.mindfree.net)은 이런 전통을 되살려 재가 참선단체로는 처음으로 '소참(小參)법회'를 연다. 지난 8월부터 수(수)오(수) 7시~8시30분, '완능묵' 강의, 토요일(오후 2시30분~5시, '원오심요' 하, '노자 도덕

경' 강의) 정기 법회 이외에 아침, 저녁으로 소참법회를 열고 있는 무심선원은 매주 목요일 오전 11~12시, 매주 목·금요일 오후 7~8시 정기 소참법회를 마련했다. 선어록 강의를 겸한 '선 법문'으로 '직지인심(直指人心)'의 활발한 문답식 공부를 진행하고 있는 무심선원은 소참법문을 통해 수시로 의문점을 해결할 수 있는 법가량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051)515-7226

계룡산 국제선원 무상사 가을 선수행

충남 논산 계룡산에 위치한 국제선원 무상사(주지 무심, www.musangsa.org)는 두 차례의 단가 가을 결계수행을 실시한다.

추석 선수행은 9월 10~13일 4일간, 10월 결계는 10월 3~5일 3일간 열린다. 미국 스님인 무심, 명행 스님이 직접 참선을 지도한다. (042)841-6084

호두마을 우 소바나 스님 초청 수련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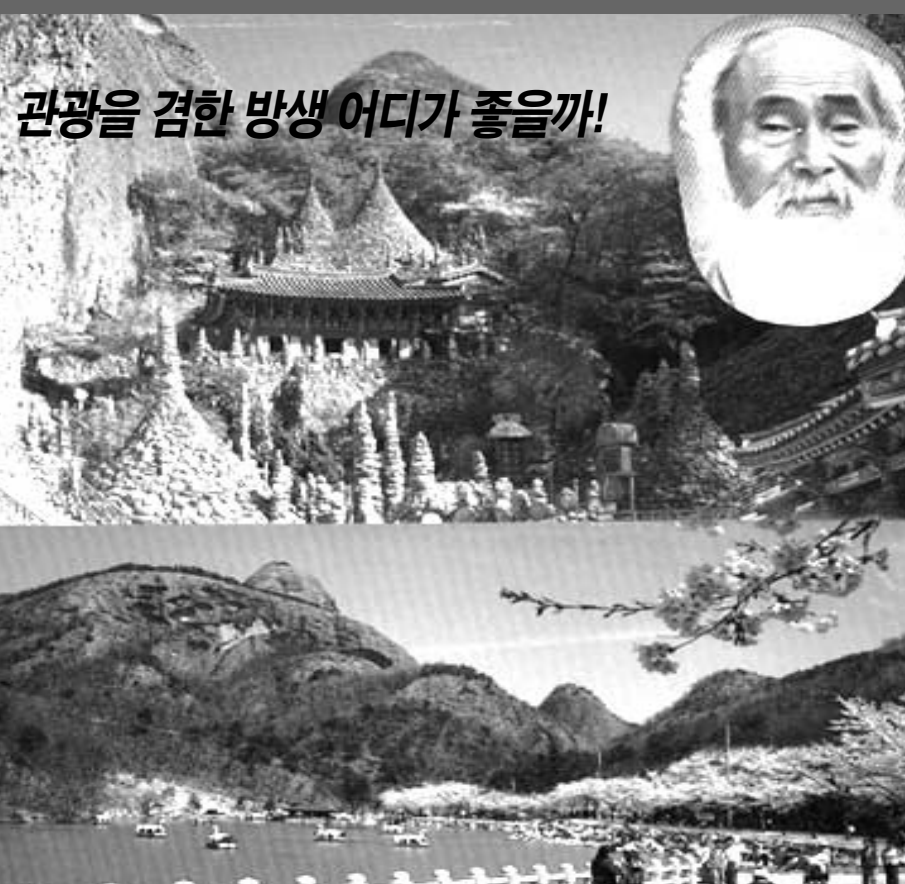
천안 호두마을(이사장 조현곤)은 10월 3~12일 9박10일간 미안마의 고승인 우 소바나 스님 초청, 특별수련회를 연다. 모곡수행센터(Mogok Meditation Center) 지도법사인 우 소바나(U Sobhana) 스님은 스승인 모곡(1899~1962) 스님의 방식대로 12년기와 오온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게 한다. 수행으로 그 과정을 체험하게 한다. (041)567-2841

불자의 긍지·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이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광고계약·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사명	활동지역	지사장명	연락처
부산지사	부산일원	김종렬	051)632-0064 / 011-219-5066
대구지사	대구일원	손문철	053)768-8008 / 016-813-8008
광주지사	광주일원	주용직	062)375-9986 / 016-602-7544
강릉지사	강릉일원	전유진	033)643-5599 / 018-236-5589
전북지사	전북일원	조기식	063)255-2274 / 011-9644-4579
경남 동부지사	밀양·창령/의령	혜봉스님	055)353-1196 / 017-650-1196
영주지국	영주·문경/봉화	박영애	054)634-3429 / 011-9373-3778
충북지사	청주일원	일봉스님	043)258-3282 / 011-459-3282
대전지사	대전일원	류재희	042)534-6523 / 017-433-6523
경남 서부지사	마산·창원/김해	보성스님	055)547-3469 / 011-9557-4566
제천지국	제천/단양	청산스님	043)644-4366 / 011-485-4080

신비의 마이산 탐사 탐영제방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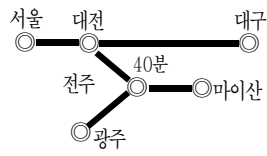


관광을 겸한 방생 어디가 좋을까!



▶ 마이산 탐사와 탐영제

관광과 방생을 한곳에서!
기묘한 산이 있어 좋고, 불가사의한 탐이 있어 신비스러운 곳, 이태조가 백일기도를 드린 영험있는 기도도량. 섬진강 맑은 물의 탐영제방생기도



진안 마이산 탐사
063)433-2900, 0303
432-0652, 0072